

1948년에 출간된 조복성의 곤충 관련 저작에 관한 연구

-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Jo Bok-seong's Insect-related Books Published in 1948: Focused on *Story of Insects* and *About Insects*

진 나 영 (Na-Young Jin)*

목 차

- | | |
|-------------------------------|--------------------------|
| 1. 서론 | 4.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내용 분석 |
| 2.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저자 및 발행 | 5. 결론 |
| 3.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형태 및 체제 분석 | |

초 록

본 연구는 1948년에 발행된 생물학자 조복성의 저작인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를 대상으로 형태 및 체제, 내용 분석을 통해 두 저작의 특징과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을유문화사의 병설단체인 아협에서 발행한 『곤충이야기』는 A5판의 국판(菊版), 을유문화사에서 발행한 『곤충기』는 A6판 문고판으로 출간되었다. 또한 『곤충이야기』는 앞표지-표제지-머리말-차례-본문-판권기-광고-뒤표지로, 『곤충기』는 앞표지-표제지-목차-서언-본문-판권기-을유문고 발간사(發刊辭)-광고-뒤표지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두 저작의 내용을 통해 주요 독자층은 『곤충이야기』의 경우 어린이 및 소학생, 『곤충기』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밝혀졌다. 또한 『곤충이야기』에서는 65종 곤충을 조복성이 설정한 11개의 류(類), 『곤충기』는 약 56종의 곤충에 대해 9개의 류(類)의 분류체계에 따라 설명했다. 두 저작에 수록된 곤충의 수와 분류체계의 명칭은 서로 달랐으나 『곤충이야기』의 분류체계 대부분이 『곤충기』의 것에 수용됨을 확인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n forms and contents of *Story of Insects* (Gonchung Iyagi) and *About Insects* (Gonchung-gi), writings of biologist Jo Bok-seong published in 1948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wo books and compare them. *Story of Insects* was made in the form of front cover-title page-foreword-table of contents-main text-copyright clause-advertisement-back cover, with the book size being A5 format. Contents of the book were divided into nine grou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65 species insects, to describe their characteristics. While, *About Insects* was made in the form of cover-title page-foreword-table of contents-main text-copyright clause-publication message of Eulyoo Mungo-advertisement-back cover, with the book size of A6 format. Contents of the book were divided into the author's own 11 grou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56 species insects, to describe their characteristics. *About Insects* being Eulyoo Publishing Co. and *Story of Insects* being Association of Joseon Children's Culture (abbreviated as Ahyeop) - sister company of Eulyoo Publishing Co. - but with the same basis.

키워드: 조복성, 을유문화사, 조선아동문화협회, 아협, 곤충기, 곤충이야기

Jo Bok-seong, Eulyoo Publishing Co., Association of Joseon Children's Culture, Ahyeop, *About Insects*, *Story of Insects*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jny415@naver.com / ISNI 0000 0004 6098 9906)

논문접수일자: 2019년 4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5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267-294,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2.267]

1.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압제로 인해 서적을 출판함에 있어 큰 제약이 있었다. 일제 치하의 신문지법, 출판법 등으로 억압을 받았던 언론과 출판은 1945년 해방 직후 군정법령 제19호의 공포에 의해 출판활동에 대한 규제도 사라지게 되었다. 용지 부족, 한글 활자의 부족 등 출판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출판사가 등록되었고, 다양한 서적을 출판하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또한 해방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민족문화의 수립을 위한 열의가 높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방기의 출판사들은 우리나라의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을 동원하여 정치, 경제, 철학, 역사, 과학, 예술 등 전 영역에 대한 서적을 출간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 및 발전, 국민들의 계몽과 지적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해방기의 많은 출판사 중 하나인 을유문화사는 1945년 12월에 창립되었는데, 창립자 중 정진숙에 따르면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 출판사를 창립하여 책을 출판하였다고 한다. 또한 회사 창립 초기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에게 민족문화를 전하고,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아동도서의 출판에 전력했음을 표명했다(정진숙 2007, 96). 아동도서 출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을유문화사는 창립자 중 하나인 윤석중을 대표로 하여 을유문화사의 병설단체로서 조선아동문화협회(약칭 아협)를 설립했다. 아협은 어린이 및 학생들이 쉽게 우리 문화와 한글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어린이 독자를 위한 서적을 출판했다. 또한 을유

문화사는 우리나라의 학자들을 총동원하여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대중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조복성 1948, 을유문화사 발간사). 을유문화사 발행 목록을 통해 출판물의 저자를 살펴보는 중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리는 생물학자 겸 곤충학자 조복성이 있었다. 조복성은 유년기부터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에 정진하였고, 백두산, 울릉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곳곳을 조사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최초로 곤충학 논문을 발표했다. 답사 중 발견한 곤충 등에 본인 이름을 넣어 명명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조선인 생물학자 및 곤충학자로서 인정을 받았다. 곤충학자 조복성은 우리나라의 곤충을 연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손과 머리로써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다고 밝혔으며(조복성 1948, 머리말),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학생들, 더 나아가 청년을 대상으로 곤충의 특징 및 곤충을 연구하는 방법 등을 담은 서적을 저술했다. 이것이 바로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였다.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는 해방 직후 발행된 한국 최초의 곤충 관련 저서로 확인되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여러 곤충들을 한국인이 소개를 했다는 점은 해방기 출간 서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두 서적은 저자 조복성이 국립과학박물관장으로 재직기간 중에 출간한 것으로, 곤충학계에서 저명한 학자의 저작물로서 가치를 갖는다. 두 저작은 발행년이 1948년으로 동일하며, 같은 저자로서 조복성에 의해, 을유문화사 그리고 그의 병설단체인 아협이 발행하여 그 출판·발행의 근본이 같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하다. 특히 두 저작은 조복성의 저서 중 해방

이후 처음으로 출간된 서적으로 귀중하나 국내 도서관의 목록을 조사해보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책이 극히 드물게 전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자인 조복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정도일 뿐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방기인 1948년에 저자 조복성에 의해 을유문화사가 출판하였고 곤충에 대한 주제로 발행된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를 대상으로 형태 및 체제,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곤충이야기』와 『곤충기』 간의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두 저작의 특징과 차이점을 분명히 밝혀 두 저작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2.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저자 및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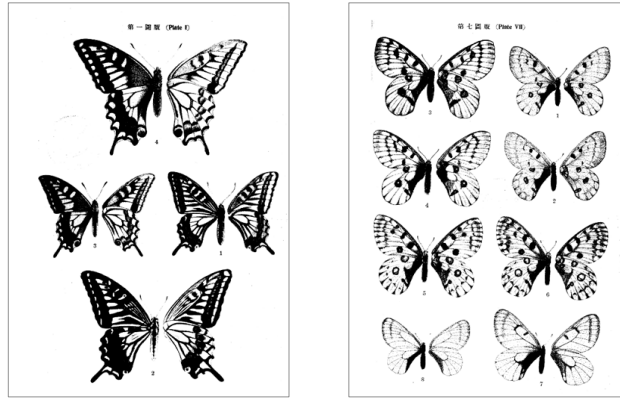
2.1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저자 조복성

조복성(1905-1971)은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 상수보통학교를 마치고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다. 당시 교과목 중에는 박물학(생물학)이 있었는데, 담당 교사는 일본인 도이 히로노부(上居寛暢)였다. 조복성은 나비를 채집하여 도이 히로노부에게 나비와 관련한 질문을 하여 선생님의 눈에 띄었고, 이후 매주 주말 선생님을 수행하여 곤충 채집을 다녔다. 황해도로 시작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금강산, 묘향산, 목포, 군산, 전주 등 일주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복성은 도이 히로노부로부터 곤충 채집과

분류, 표본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배웠다(김진일 2010, 3-4).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조복성은 해주 제2보통학교 훈도로 부임했다. 당시 황해도 교육당국은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 생물학을 강의하던 모리 타메조(森爲三)를 초청하여 황해도 보통학교 선생을 대상으로 생물학 강습회를 개최했다. 조복성은 자신이 만든 곤충 표본을 보였고, 모리 타메조는 칭찬과 함께 조복성에게 관심을 보였다. 1925년 모리 타메조는 조복성에게 함경남도 일대로 채집 여행을 할 것을 제의했다. 3주일간 대덕산 채집 여행 동안 조복성은 모리 타메조로부터 동물분류학을 배우게 됐다.

1926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특별 요청으로 조복성은 경성의 수하(水下)보통학교 훈도로 부임했다. 그 해 여름 모리 타메조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조직한 백두산 탐험대에 참가했다. 3주일간 백두산 탐험 중에 조복성은 6백여 종 6천 마리 가량의 곤충을 채집했다. 또한 2년 뒤에는 울릉도로 채집을 가면서 이후 나비목 곤충의 목록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곤충학 관계 논문인 『울릉도산 인시목(鱗翅目)』으로 '조선박물학회지'에 발표하였다. 계속적인 채집과 곤충 연구로 1930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조수가 되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1934년에는 국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나비들을 도이 히로노부와 모리 타메조와 함께 정리하여 『原色朝鮮の蝶類』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당시까지 알려진 조선의 나비 211종이 수록된 도감으로서, 책에 실린 나비의 그림은 조복성이 손수 그렸다(김성원 2007, 8-15).



〈그림 1〉『(原色)朝鮮の蝶類』 수록의 조복성의 삽화

조복성은 1930년대에 모리 타메조와 함께 조선, 만주, 내몽골, 화북 등지로 야외 채집 활동을 하였으며, 채집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곤충들을 채집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한 생물학자였다. 또한 1935년까지 조복성은 동물명을 명명하였는데, ‘개마암고운부전나비’, ‘차일봉지옥나비’ 등과 같은 종류도 있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복성박쥐’, ‘복성몽툽맷시벌’ 등 6종의 곤충이 있었다(김성원 2007, 17).

조복성이 활발히 채집 활동과 연구를 한 1930년대는 조선에서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여러 신문들과 잡지들은 과학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과학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 조선인으로서 곤충 연구 논문을 발표한 조복성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조선인 학계 내에서 생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1930년대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사들이 곤충 표본 전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조복성은 그동안 채집 활동을 통해 수집하여 소장한 곤충 표본을 출품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조선인 생물학자로서 조복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조선곤충전람회는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복성과 김병하가 채집한 곤충을 진열하였다. 이 전람회는 조선 과학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라서 의미를 가졌다. 위의 기사에서 조선 학계의 숨은 곤충학자이자 채집가로서 조복성에 대해 소개하였고,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조복성 씨는 평양 출생으로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동교 사범과를 지나 해주(海州)제이공립보통학교에서 2년간, 시내 수하동공립보통학교에서 4년간 교편을 잡았고, 지금은 시외 청량리 경성제대예과 생물학 교실에 있어 오로지 곤충 방면에만 정진하고 있는 당년 26세의 소장학자이다.”

이를 통해 알려진 조복성은 이후 〈동아일보〉에 5회에 걸쳐 기고문을 연재하여 조선 곤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1933년 5월 26일에는 화재로 표본을 소실한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박물관에 딱정벌레류 표본을 기증하였다. 이러



〈그림 2〉 1931년 5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조복성 관련 기사

한 조복성의 행보가 신문 기사로서 소개되면서 조복성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졌다.

조복성은 1930년부터 11년간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의학부에 근무했다. 1941년부터는 중국의 난징[南京]·항저우[杭州]·시후[四湖]의 박물관에서 동물학을 연구하였으며 곤충 전문가로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 해방 후 조복성은 중국 남경박물관·항주 서호박물관 특파원 구원으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당시 국내 생물학 연구의 중심기관이었던 국립과학박물관장에 임명되었다. 1945년에는 조선생물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조복성은 일본어로 된 동식물의 명칭을 조선어로 바꾸는 일에 참여했다. 이러한 조복성의 업적은 해방 후 우리나라 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946-1947년에는 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부에서 발간한 『국립과학 박물관동물학연구보고』에 하늘소와 곤충의 조선어 명칭을 정리한 논문을 비롯하여 4편의 연구논

문을 발표했으며, 곤충과 동물에 대한 저술도 많이 출판했다(김성원 2007, 45-46). 또한 중국의 북만주·간도(間島)를 비롯하여 타이완과 일본 등을 답사 및 연구한 결과를 연구논문으로 발표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복성의 연구 성과로서, 평생 발표한 논문은 83편으로 확인되며 그 중 58편은 주로 야외에 나가 채집 등을 통해 연구된 곤충들에 대한 기재나 목록 위주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¹⁾ 1953년 4월에는 성균관대학교, 1955년 3월부터는 고려대학교에서 동물학 교수를 지내며 후학들을 양성했다.

해방기 전 조복성은 일본인 생물학자로부터 도제식 학습을 받으며 많은 곤충을 채집하였다. 조선인으로서의 거의 최초로 곤충 분류학 연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성제국대학에 재직하면서 조복성은 일본인 학자들과 다양한 곤충과 나비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인 중국, 대만, 일본 등까지 범위를 넓혀 폭넓

1) 조복성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김진일의 논문 “한국 곤충학의 선구자 관정 조복성 박사의 생애와 업적” 중 pp. 8-11에 정리되었다.

은 연구를 수행했으며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동물 및 곤충에 대한 연구 과정과 행적, 업적들을 통해 조복성은 우리나라 동물학과 곤충학의 입지를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국 곤충학 연구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발행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는 조복성이 저술한 곤충 관련 책으로, 1948년에 발행되었다. 즉 동일한 저자에 의해 곤충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같은 연도에 출간되었다. 각 저작의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곤충이야기』는 아협이 발행했고, 『곤충기』는 을유문화사가 출간했다.

아협은 조선아동문화협회(朝鮮兒童文化協會)의 약칭이다. 이 단체는 출판사인 을유문화사에서 부대사업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을유문화사는 민병도, 정진숙, 조풍연, 윤석중 등 4명이 뜻을 모아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영보빌딩에 1945년 12월 창설되었다(조선출판문화협회 1949, 91).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언어, 사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있어 억압을 당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육, 문화 또한 그 상황이 열악했다. 해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은 민족문화를 향상시키고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문화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을유문화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아동문화에 관심을 모았다. 즉 아동들에게 국어의 보급을 통해 한글을 읽고 정확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을유문화사의 창립자 중 윤석중은 식민지배의 문화에서 벗어나 민족주체성 회복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

다(정진숙 2007, 96). 그리하여 윤석중을 주축으로 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출판 및 문화 사업을 담당할 을유문화사 병설인 아협이 발족되었다. 아협은 도서의 판매 및 수출입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에 전통적인 민족문화의 선양을 위한 업무도 했다. 또한 아협은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깨칠 수 있도록 한글로 된 책을 출판하는 사업을 하였다. 아동도서 단행본과 어린이 잡지 간행에 주력을 기울여서 한글과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운동을 전개했다(정진숙 2007, 104). 이러한 아동도서 출판사업의 일환으로서 『곤충이야기』도 1948년에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곤충기』는 을유문화사에서 만든 문고인 을유문고의 19번째 책으로 발행되었다. 을유문화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와 사상의 국민적 보편화를 기대하며 대중용 엽가판인 을유문고의 출간을 기획하였다(을유문화사 1997, 79).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을유문고는 1948년 2월에 박태원 저술의 『성탄제』가 가장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을유문화사 50년사』에 있는 〈발행도서목록〉에 따르면 을유문고 첫째 권이 아니라 ‘을유문고 7’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을유문고의 출간이 일련번호 순으로 기획되지 않고 발행 또한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통해 을유문고가 일련번호 순으로 출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을유문화사 1997, 81). 을유문고는 국학 분야와 기타 교양서적들로 기획·구성되어 간행되었는데, 세계 명작에 대한 번역본을 비롯하여 국내 저자의 독창적인 저작물도 다수 포함됐다. 을유문화사는 을유문고의 출판에 공을 들여 원고를 엄선했을 뿐 아니라 교정을 엄밀히 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

게 했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여러 독자들에게 애호를 받았다(정진숙 2007, 231-232). 을유문고는 형태적으로 작은 소책자로 출간되었는데, A6판 150면 안팎의 부피에 200원 내외의 정가가 매겨졌다. 을유문고는 비록 형태적인 크기는 작았으나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애독자가 많아졌으며, 당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서 입지를 굳혔다. 을유문고의 독자층은 청년, 즉 대학생층으로 확인되었다(오영식 2009, 192). 또한 을유문고로 출간된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동서고금을 망라하였고 좌우의 사상적 대립을 포용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을유문화사 1997, 81).

이를 정리해보면 『곤충이야기』를 발행한 아협은 『곤충기』를 출간한 을유문화사가 병설한 단체로서 명칭은 다르지만 그 연원은 을유문화사의 동일 범주로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아협은 아동도서라는 한정적인 범위로서의 출간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즉 1948년에 조복성이 곤충을 주제로 다룬 책으로서 을유문화사의 병립한 단체인 아협에서 어린이 독자층에 초점을 둔 『곤충이야기』를, 을유문화사에서 청년 독자층을 위한 『곤충기』를 발행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3.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형태 및 체제 분석

3.1 형태 분석

『곤충이야기』는 1948년 6월 25일에 출간하

였고, 실제 책을 확인한 결과 71페이지로 구성되었다. 크기는 세로 21cm로 A5 판형, 즉 국판(菊版)으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곤충기』는 1948년 12월 15일에 발행하였다. 132페이지로 구성되었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가 약 15cm로 A6의 판형이었다.

두 저작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곤충이야기』의 판형은 A5 판형인 국판, 『곤충기』의 경우는 A6 판형인 문고판으로 상이하였다. 『곤충이야기』는 당시 아협이 아동층을 대상으로 출간한 서적들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국판의 판형을 따르고 있었다. 『곤충기』는 을유문고의 하나로서, 이외의 을유문고본을 확인해본 결과 대체로 A6 판형으로 출간되었다. 이들 판형은 실제로 손바닥 크기의 자그마한 형태였는데, 이러한 책의 판형은 출판 당시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49년 출판된 『출판대감』에 따르면 해방기 출판에 있어 갱지, 마분지, 선화지 등 용지의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출판대감 1949, 4). 이러한 용지난은 해방기 출판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고본이 유행하였다. 문고본이란 휴대하기 편하며 값이 싼 책을 의미하는데, 해방기에 출간된 문고본의 경우는 휴대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분량이 좀 되는 단행본으로 묶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책들이 용지 부족이라는 당시 현실과 마주하면서 대안책으로써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한국출판학회 2012, 110-111). 또한 위에서 『곤충기』가 을유문고의 한 책으로서 판형면에서 A6 판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판형과 비슷한 4·6 판에 가깝고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오영식 2009, 26). 문고본들은 대체로 번역서, 아

동도서나 적은 분량으로도 출판이 가능한 작품들을 문고판, 국판의 판형으로 출판했음을 알 수 있다.

3.2 체제 분석

『곤충이야기』의 체제는 '앞표지-표제지-머리말-차례-본문-판권기-광고-뒤표지'의 순서로 구성되었고, 『곤충기』의 체제는 '앞표지-표제지-목차-서언-본문-판권기-을유문고 발간사(發刊辭)-광고-뒤표지'의 순서로 두 저작의 체제 구성은 유사하였으나 각각을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확인해보았다.

3.2.1 표지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앞표지와 뒤표지의 서영(書影)은 <그림 3>과 같다.

『곤충이야기』의 앞표지에는 '소년과학독본'이라고 판기(冠記)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이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소년과학독본'으로 아협에서 『곤충이야기』 외에 다른 책을 출간했는지를 조사해보았지만 『곤충이야기』만 이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책의 서명과 저자명이 기재되었으며 곤충을 주제로 한 서적임을 알려주듯 사슴벌레를 앞표지의 삽화로 넣었다. 앞표지 아랫 부분은 찢

구분	『곤충이야기』	『곤충기』
앞표지		
뒤표지		

<그림 3>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표지 서영(書影)

겨 있으나 조선아동문화협회, 즉 이 책을 발행한 기관명이 기재되었다. 뒤표지에는 곤충 귀뚜라미의 모습을 삽화로 넣었다. 또한 해방기 도서 출판물 중에는 출판사별 상징문양을 책에 넣어 출판하는 예가 종종 있었는데, 『곤충이야기』의 뒤표지에도 <그림 4>와 같은 아협(아동문화협회)의 상징문양을 넣었다.

『곤충기』의 앞표지는 표제와 저자명 조복성, 발행처인 을유문화사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었다. 또한 을유문화사의 총서명인 ‘을유문고’도 기입되어 있어 이 책이 을유문화사가 기획한 을유문고본의 한 책임을 알 수 있다. 표지의 그림은 구름 문양과 유사한 무늬로 구성하였다. 뒤표지에는 별다른 정보 없이, <그림 4>와 같은

발행처인 을유문화사의 상징문양을 중심으로 무늬를 넣었다.

두 책의 표지의 비교한 결과, 표지에 구성된 서지요소들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곤충이야기』는 표제나 발행처를 두겹게 표시하여 눈에 잘 띄는 모습을 보였다. 『곤충기』는 문고본이라는 형태적 한계 때문인지 『곤충이야기』에 비해 글자가 작은 편이었다. 『곤충기』는 문고본이기 때문에 ‘을유문고’임을 표지에 명시해놓은 점이 『곤충이야기』와는 달랐다.

3.2.2 표제지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표제지에 해당하는 서영(書影)은 <그림 5>와 같다.



조선아동문화협회



을유문화사

<그림 4> 아협과 을유문화사의 상징문양(로고)



<그림 5>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표제지 서영(書影)

『곤충이야기』의 표제지에는 서명인 ‘곤충이야기’와 저자명 조복성이 기재되었다. 저자에 대해서는 ‘국립과학박물관장’이라는 조복성의 직함을 첨가하여 앞표지와는 달리 저자에 대한 정보를 더 실었다. 중간 부분에는 쇠뿔구리 모습을 삽화로 넣었고, 앞표지에서는 정식 발행기관명을 썼으나 표제지에서는 발행기관명의 약칭을 기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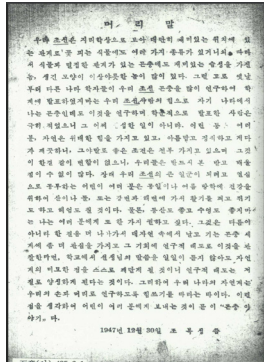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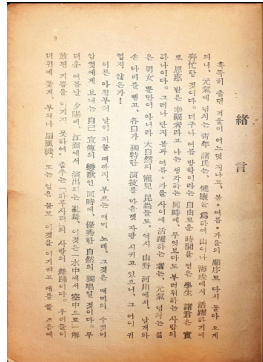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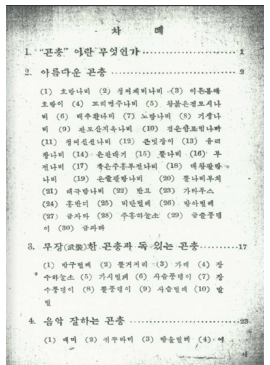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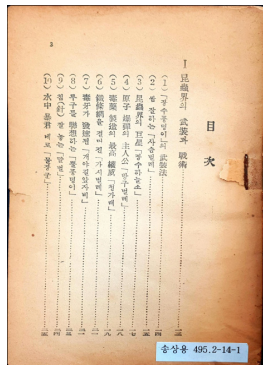
『곤충기』의 표제지는 표제와 저자명, 발행처와 총서명 및 총서번호가 기재되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곤충기』는 을유문고 19번째 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을유문화사의 상징문양이 표제지 중심에 위치했다.

두 책의 표제지를 비교한 결과, 두 책의 표제지

를 구성하는 서지요소들은 거의 동일했으나 『곤충이야기』는 한글로 『곤충기』는 한자로 기재되었다는 점이 달랐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각 책의 머리말(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상 독자층이 『곤충이야기』는 어린이 및 소학생, 『곤충기』는 중학생 이상 청년을 목표로 하였고 때문에 수준별로 달리 표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곤충기』의 총서명과 총서번호가 있는 점은 이 책만이 문고본이었기 때문에 표제지에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3.2.3 머리말(서언)과 차례(목차)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머리말(서언)과 차례(목차)에 해당하는 서영은 <그림 6>과 같다.

구분	『곤충이야기』	『곤충기』
머리말(서언)		
차례(목차)		

<그림 6>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머리말(서언)과 차례(목차) 서영

『곤충이야기』의 머리말은 저자 조복성이 직접 작성하였고, 차례는 14가지의 주제로 구분하여 이 책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곤충기』의 목차는 11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기재했고, 서언은 조복성이 직접 작성했다.

두 책을 비교한 결과, 『곤충이야기』는 머리말-차례의 순으로 기재됐고, 『곤충기』는 『곤충이야기』와는 반대로 목차-서언의 순이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 또한 『곤충이야기』는 머리말, 차례와 같은 순우리말을 사용했고, 『곤충기』는 서언, 목차와 같이 한자어를 사용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각 책의 독자층의 차이로 인해 저자가 각 서적의 독자층에 맞는 글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3.2.4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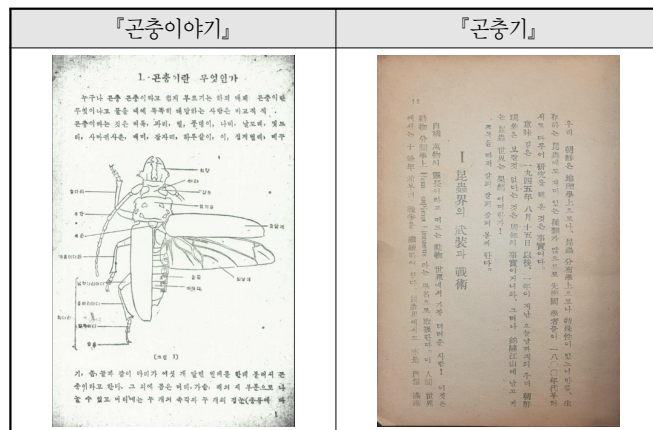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본문 부분의 서영은 <그림 7>과 같다.

『곤충이야기』의 본문은 서술 형식으로 곤충에 대해 설명하였고, 곳곳에 설명에 대한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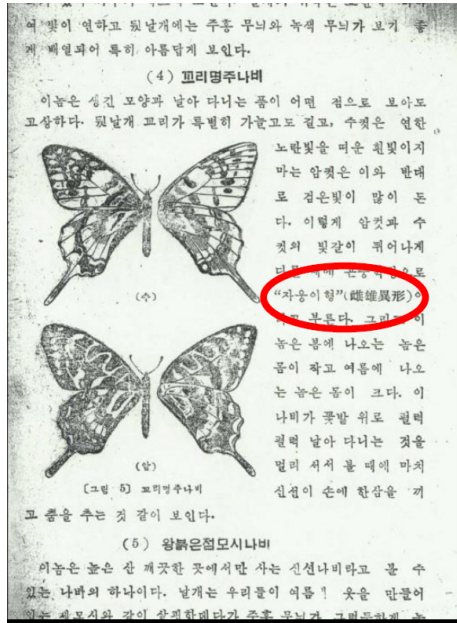
을 주고자 삽화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곤충이야기』는 차례, 머리말, 본문 등이 가로쓰기의 형식으로 구성됐다. 또한 본문은 주로 한글을 사용했고 한자어인 경우에는 한글 옆 원괄호 안에 한자어를 병용했다.

『곤충기』의 본문 또한 곤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곳곳에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로 구성됐다. 또한 목차를 비롯하여 서언, 본문 등은 모두 세로쓰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은 한글과 한자가 병용되었으나 한자어의 경우는 한글과 병용하지 않고 한자어 그대로를 기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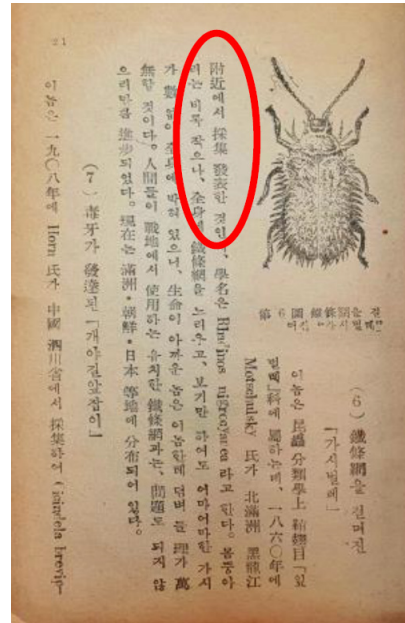
위의 두 저작의 비교 결과, 본문에서 곤충에 대해 비교적 쉽게 설명했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가 있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형식상 『곤충이야기』는 가로쓰기의 서자(書字)방식을, 『곤충기』는 세로쓰기를 채택한 점은 두 저작의 차이로 확인됐다. 또한 『곤충이야기』는 주로 한글을 사용했고 한자어의 경우는 한글(한자)의 형식으로, 『곤충기』는 한글을 쓰되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 그대로 기재했다. 이에 대한 서영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7>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본문 서영(書影)



『곤충이야기』



『곤충기』

〈그림 8〉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서자 방향과 글자 부분 서영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포함되어 『곤충기』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행갈이를 하는 세로쓰기의 형식이 계속되었다. 근대에 들어 1880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원이 『한불조전』을 편찬하였는데, 이 때 알파벳을 써야했기 때문에 가로쓰기가 처음 적용됐다. 이는 가로쓰기 방식을 사용하던 서양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이 쓴 책 중 처음으로 가로쓰기 방식을 채택한 것은 1985년 이준영 등이 편찬한 국현대역사전 『국한회어(國韓會語)』로, 서문에 따르면 외국의 책을 모방하여 횡서 방식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홍운표 2013, 191).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글을 쓸 때 가로쓰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생겼다. 1897년 9월 28일자 <독립신문> 2권 115호에 투

고된 「국문론」에서 주시경은 여러 가지 유용성을 들어 가로쓰기를 주장했다. 가로쓰기를 하면 손에 먹이 묻지 않으며 먼저 쓴 글의 뜻을 생각하며 다음 줄을 쓸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고 의견을 내세웠다(홍운표 2013, 192). 이러한 주시경의 제자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조선어학회를 창립하여 기관지 『한글』 창간호부터 가로쓰기 방식을 채택 및 시도했다. 해방 이후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갈이를 하는 가로쓰기 방식을 실험하였는데 광복 이후인 1945년 첫 한글교과서인 『한글 첫 걸음』을 가로쓰기 방식으로 편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로쓰기 형식이 일부 외국인 및 학자들에 의해 종종 사용되었으나 당시의 관습이나 한자 폐지 및 띄어쓰기에 관한 문제, 인쇄 기술 등 출판사정의 한계로 인해 출판물 대부분은 세로쓰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정재환 2013, 56-57). 이러한 사실로 보아 아직까지 해방 직후는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병용되는 과도기적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곤충이야기』와 『곤충기』가 출간되었던 1948년 또한 책을 출판할 때에 가로쓰기나 세로쓰기가 일정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나 이 두 서적은 각각 서자 방향이 다른 형식으로 발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단편적인 분석만으로는 밝히기 어렵고, 국문학을 비롯한 출판학적인 연구가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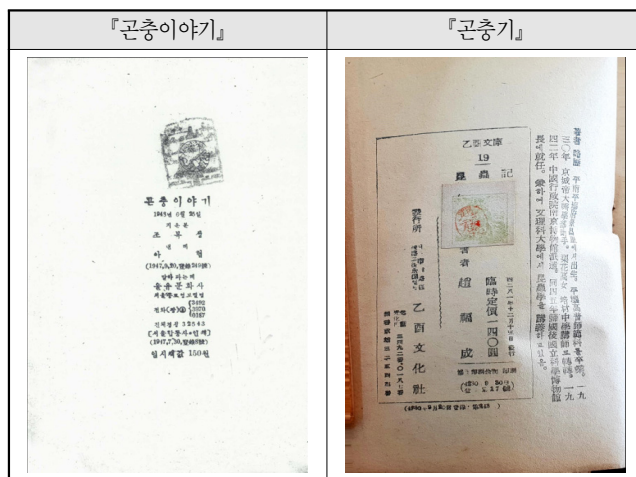
또한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에서 한자 기술함에 있어 전자는 한글과 한자 병기를, 후자는 한글 대신 한자어로 사용됨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대상 독자층을 비교했을 때 『곤충이야기』는 한글을 배워야 하는 어린이와 소학생이었고, 『곤충기』는 그보다 더 연령과 학력 수준이 높은 중등학생 이상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한자 기술의 차이를 둔 것은 아닌지, 또한 각 서적의 한자 기

술 형식은 앞서 살펴본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형식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점도 향후 비슷한 시기의 출판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2.5 판권기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판권기 부분의 서영은 <표 9>와 같다.

『곤충이야기』의 판권기에는 목록 서지사항으로서 표제(서명), 책임표시(저자명), 발행년, 발행처, 발행지, 가격이 있고, 저작권 관련 사항으로 저작자, 출판권자가 있었다. 그밖에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출판사의 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인쇄소명과 인쇄소의 등록번호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협에서 출판했고 이 책에 대해 말아서 판매한 곳은 을유문화사였다. 임시책값은 150원이며, 서울합동사에서 인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복성의 인장이 판권기 내용 윗부분에 날인되었다.



<그림 9>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판권기 서영(書影)

『곤충기』 판권기 또한 목록 서지사항으로서 총서명과 번호, 표제(서명), 책임표시(저자명), 발행년, 발행처, 발행지, 가격이 있고, 저작권 관련 사항으로 저작자, 출판권자가 있었다. 또한 저자 조복성의 인장이 별지에 날인되어 판권기의 가운데에 붙었다. 그외에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출판사의 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인쇄소명과 인쇄소의 등록번호와 저자의 약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발행소는 을유문화사였고, 임시정가는 140원이며, 인쇄를 한 곳은 책의 글자가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관북인쇄공사(關北印刷公司)²⁾로 파악됐다.

두 서적의 판권기를 비교한 결과, 판권기에 실린 정보들의 항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곤충이야기』는 가로쓰기와 한글로, 『곤충기』는 세로쓰기와 한자로 기재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곤충기』의 판권기 옆에는 저자 조복성의 약력에 대해 소개했다는 점이 달다. 이 부분은 을유문고본의 형식 중 하나로서 을유문고본은 각 책마다 저자가 다르므로 판권기 옆에 책의 저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3.2.6 광고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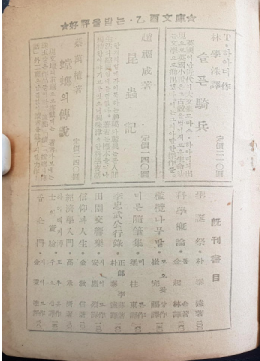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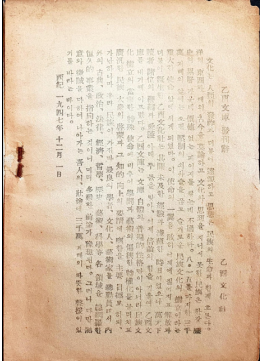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광고 부분과 『곤충기』의 ‘을유문고 발간사’ 부분의 서영은 <그림 10>과 같다.

『곤충이야기』의 뒤표지 바로 앞면에는 아협에서 발행한 다른 서적들을 광고하는 면을 실었다. 그 중 하나는 당시 국민(초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아협에서 발행한 잡지인 『소학생』이었는데 이 책의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우리말 사전인 『학생 조선어 사전(學生 朝鮮語 辭典)』, 한글 맞춤법 공부를 위한 『틀리기 쉬운 말』, 조선 음악에 대한 책인 『조선 음악 독본』, 동화 독본인 『토끼 삼형제』에 대한 광고도 실었다. 각 책에 대한 책임표시와 함께 간단한 내용 소개, 책값 등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였다.

『곤충기』는 판권기 다음에 1페이지 분량의 ‘을유문고 발간사’가 실렸다. 뒤표지 바로 앞면에는 “호평을 받는 을유문고”라는 제목으로 이에 관련된 서적들을 광고하는 면을 실었다. 실린 서적들은 T. 하아디 작품인 『슬픈 기병(騎兵)』, 조복성 저서인 『곤충기』, 채만식 저서인 『당랑(螳螂)의 전설』이었다. 아래 부분에는 기간서목(既刊書目)으로서 박태원 저서인 『성탄제』, 톰손 저서인 『과학개론』, 모오팻상 작품인 『함람(檻欄)나무밭』, 미른 작품인 『미른수필집』, 정랑 이분(正郎 李芬) 저서인 『이충무공행록(李忠武公行錄)』, 시이드 작품인 『전원교향악』, 김교신(金教信) 저서인 『신앙과 인생』, 고승제 저서인 『경제학입문』, 호우톤 작품인 『하이데거박사(博士)의 실험(實驗)』, 지이드 작품인 『좁은 문(門)』 등이 있었다. 뒤 페이지에는 『전원교향곡』과 맑스·엥겔스 유고(遺稿)인 『또이체·이데올로기』, 양주동 역(梁柱東 譯)의 『시경초(詩經抄)』 등 각 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넣은 광고를 실었다.

2) 관북인쇄공사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1951년 7월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이학수(李學洙)가 설립했던 공장으로 확인되는데, 조복성의 『곤충기』의 발행연도가 1948년임을 보면 이에 대한 사실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분	『곤충이야기』	『곤충기』
광고		
기타 (을유문고 발간사)	X	

〈그림 10〉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광고와 ‘을유문고 발간사’의 서영

두 서적의 광고를 비교한 결과, 『곤충이야기』에는 아협에서 발간한 책들의 광고를 실었고, 『곤충기』에는 을유문화사에서 발행한 책들의 광고를 넣었다. 아협은 발행 서적들의 주요 독자층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곤충기』의 광고에 실린 책들보다는 비교적 쉬운 서적들이었고, 광고 또한 한글로 기재했다. 반면에 『곤충기』에 실린 책들은 좀 더 수준이 높은 서적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광고들은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독자층의 연령이 『곤충이야기』의 독자층보다 높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곤충기』에는 『곤충이야기』의 체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광고를 실은 면의 앞 페이지에 ‘을

유문고 발간사’를 기재하여 실었다. 이는 『곤충기』가 ‘을유문고’ 시리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을유문고 발간사’는 1947년 12월 1일에 쓰였고, 그 내용은 주로 을유문고가 생기게 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었다. ‘을유문고 발간사’에 따르면 해방 이후 민족문화 수립의 당면한 사명에 비추어 을유문화사가 을유문고를 출간함으로써 학문과 예술의 편협한 특권화를 물리치고 광범한 민족 대중의 계몽과 그 지적 향상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을유문화사는 여러 책의 을유문고본을 출판하였는데 19번째 시리즈로서 발행한 서적이 바로 『곤충기』였다.

4.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내용 분석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내용은 저자 조복성이 쓴 머리말과 본문, 그리고 본문에서 제시한 곤충 분류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해 분석했다.

4.1 머리말(서언)

4.1.1 『곤충이야기』

『곤충이야기』의 머리말은 이 책이 발행되기 전인 1947년 12월 30일에 저자 조복성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다. 머리말의 분량은 한 페이지에 해당되었고, 조복성은 머리말에서 ‘어린 동무 여러분’이나 ‘어린이 여러분’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 조복성이 『곤충이야기』의 독자층으로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머리말 내용 중에 ‘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 긋기로 표현했다. 또한 내용 중에 조복성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옛날부터 다른 나라 학자들이 우리 조선 곤충을 많이 연구하여 학계에 발표하였지마는 우리 조선 사람의 힘으로 자기 나라에서 나는 곤충인데도 이것을 연구하며 학문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극히 적었으니 그 어찌 섭섭한 일이 아니라 ... 대자연 속에서 날고 기는 곤충 세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기회에 연구적 태도로 이것을 관찰한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자연계의 미묘한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니 연구적 태도는 저절로 양성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자연계는 우리의 손과 머리로 연구하도록 힘쓰기를 바라는 바이다 ...”

위의 내용을 통해 조복성이 『곤충이야기』를 저술한 동기를 알 수 있었다. ‘조선’이라는 단어를 밑줄 긋기로 표현했다는 점은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자각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면 저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곤충들을 우리의 손과 머리로 연구해야 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긍심과 진취적인 민족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조복성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4.1.2 『곤충기』

『곤충기』의 서언은 이 책이 발행되기 전인 1947년 2월 8일에 저자 조복성이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실에서 직접 작성했다. 내용은 약 4페이지에 달하였고, 저자는 서언에서 ‘청년’이나 ‘학생’, ‘젊은 남녀’, ‘조선 학도’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서술했다.

“... 나는 이곳에,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昆蟲을 選擇하여 特히 昆蟲 生活에 關한 一小冊을 編成하여, 『昆蟲記』라는 題目 下에 朝鮮 學徒들에게 보내고자 한다. ...”

위의 문장에서 저자는 조선 학도, 즉 학업을 배우는 사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곤충기』를 저술했음을 표현했다. 여기에서 언급한 학도는 당시 소학교(초등학교)보다는 상급인 중학교 이상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하는 것으로

로 파악했다. 즉 『곤충이야기』의 독자층보다는 『곤충기』의 독자층이 좀 더 수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매미, 하루살이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의 모습과 함께 현대인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도 벌레에 대한 태도에 대해 기술했다. 저자 조복성은 그리스·로마시대, 독일, 남미, 이집트, 서유럽, 영국 등지에서 곤충에 관한 일화를 언급했고,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곤충에 대해 박물관식 내용을 회피한 태도로 『곤충기』를 서술하겠다고 했다. 또한 독자들에게 곤충에 대해 경시(輕視)의 눈이 아닌 생물계의 엄연한 존재로 이해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즉 이 구절을 통해 곤충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두 저작의 머리말을 비교한 결과, 대상 독자층과 저술 동기 및 목적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목표 독자층에 대해서는 『곤충이야기』는 어린이를 비롯한 소학생, 즉 나이가 비교적 어린 학생들을 겨냥했고, 『곤충기』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중학생 이상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각 저작별 독자층의 연령이나 수준을 달리했음을 파악했다. 또한 저술 동기 및 목적에 관해서 『곤충이야기』는 조선의 곤충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연구자가 아닌 우리 민족이 직접 연구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라는 당부를 했다. 『곤충기』에서는 곤충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 해온 곤충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길 권고했다. 즉 『곤충이야기』에서는 독자들에게 곤충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곤충기』에서는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곤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저술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두 저작은 광복을 맞은 해방기에 민족문화

의 수립을 위해 그리고 민족 대중의 계몽과 지적 향상을 위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조선에 있는 곤충을 자세히 설명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한 조복성의 취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

4.2 본문 및 곤충 분류체계

4.2.1 『곤충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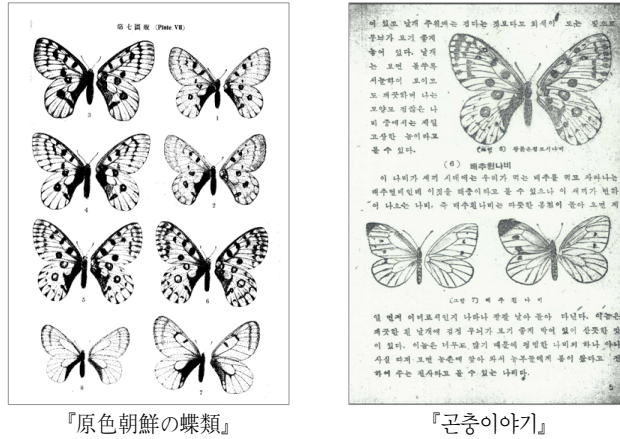
저자 조복성은 『곤충이야기』의 본문에서 우리나라의 곤충들에 대한 소개 및 곤충에 대한 연구 방법 등에 대해 기술했다. 그 순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저자 조복성은 『곤충이야기』에서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독자인 어린이들에게 곤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준 후, 65종의 곤충에 대해 곤충의 특징 및 특성에 따른 9개의 분류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이때 곤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곤충의 모습을 그림으로 넣었는데 앞 장에서 조복성이 나비 그림을 손수 그린 것으로 보아 『곤충이야기』의 삽화도 조복성이 직접 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복성이 삽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진 『原色朝鮮의蝶類』의 나비와 『곤충이야기』의 나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5종의 곤충에 대한 내용은 하나씩 나열한 것이 아니라 조복성 나름의 곤충의 특성을 9개로 구분하여 곤충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곤충’이라 하여 조복성은 곤충이 지닌 빛깔뿐 아니라 모양, 태도를 포함하여 아름답다고 판단한 곤충 30종을 소개했다. 내용은 길지 않고 곤충의 삽화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로는 ‘무장(武裝)한 곤

〈표 1〉 『곤충이야기』의 내용과 수록 곤충

순번	내용	수록 곤충
1	“곤충”이란 무엇인가	-
2	아름다운 곤충	(1) 호랑나비 (16) 부전나비 (2) 청띠제비나비 (17) 작은주홍부전나비 (3) 이큰봄애나비 (18) 대왕팔랑나비 (4) 꼬리명주나비 (19) 은줄팔랑나비 (5) 왕붉은점모시나비 (20) 빨나비부치 (6) 배추흰나비 (21) 태극밤나비 (7) 노랑나비 (22) 반묘 (8) 기생나비 (23) 가라부스 (9) 관모산지옥나비 (24) 흥만디 (10) 검은암표범나비 (25) 비단벌레 (11) 청띠신선나비 (26) 방아벌레 (12) 큰멋장이 (27) 금자라 (13) 유리창나비 (28) 주홍하늘소 (14) 은관대기 (29) 금줄풍덩이 (15) 빨나비 (30) 금파리
3	武裝한 곤충과 독 있는 곤충	(1) 방구벌레 (6) 사슴풍덩이 (2) 빨거저리 (7) 장수풍덩이 (3) 가래 (8) 빨풍덩이 (4) 장수하늘소 (9) 사슴벌레 (5) 가시벌레 (10) 말벌
4	음악 잘하는 곤충	(1) 매미 (4) 여치(찌르라기) (2) 귀뚜라미 (5) 민충이 (3) 방울벌레
5	헤엄 잘 치는 곤충	(1) 장구애비 (4) 물맴이(물무당) (2) 게아재비 (5) 물방게 (3) 소금장이
6	일 잘하는 곤충	(1) 소똥구리 (3) 흰개미 (2) 개미
7	새끼를 특별히 사랑하는 곤충	(1) 집게벌레 (3) 땅강아지 (2) 물자라
8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	(1) 누에 (2) 꿀벌
9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	(1) 파리 (4) 이 (2) 모기 (5) 빈대 (3) 벼룩
10	성미가 고약한 곤충	(1) 사마귀 (2) 물장군
11	곤충의 힘	-
12	곤충을 기르는 법	-
13	곤충을 잡는 법과 표본 만드는 법	-
14	곤충 연구법	-



〈그림 11〉 『原色朝鮮の蝶類』와 『곤충이야기』의 나비 삽화

충과 독 있는 곤충'으로 곤충의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무장한 혹은 독약을 지닌 곤충들 10종을 모아 삽화와 함께 설명을 했다. 세 번째로는 '음악 잘 하는 곤충'이라는 주제로 곤충 중에서 소리가 뛰어난 곤충을 5종으로 추려 제시했다. 매미의 경우 소리를 낼 수 있는 몸의 구조도 자세하게 그림과 설명으로 나타냈다. 네 번째에는 '해염 잘 치는 곤충'으로 물속에 살고 있는 곤충의 종류와 그 중 독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5종을 소개했다.

다섯 번째로는 '일 잘 하는 곤충'이라는 주제로 조복성은 지나치게 일을 잘하거나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곤충 중 대표적인 3종의 곤충을 뽑아 내보였다. 여섯 번째에는 '새끼를 특별히 사랑하는 곤충'으로 제 알과 어린 새끼를 특별하게 보호하며 사랑하는 곤충 중 대표적인 3종에 대해 설명했다. 일곱 번째로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이라는 주제 하에 인간 생활에 이익을 주는 곤충 3종을 뽑아 소개했다. 여덟 번째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이라는 주제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특히 사람들의 집

안으로 들어와 직접 해를 끼치는 곤충 5종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곤충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가에 대해 독자층인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했다. 마지막 아홉 번째에서는 '성미가 고약한 곤충'이라는 주제 하에 같은 종의 곤충이나 다른 동물까지 보기만 하면 잡아먹어 버리는 2종의 곤충을 제시했다. 이들의 삽화 또한 다른 곤충을 잡아먹거나 위협을 보이는 모습을 그려 넣어 곤충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65종의 곤충을 설명한 후에는 곤충의 힘, 곤충을 기르는 방법, 곤충을 잡는 방법 및 표본 만드는 법, 곤충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담고 있어 어린 독자들이 곤충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4.2.2 『곤충기』

저자 조복성은 『곤충기』의 본문에서 우리나라의 곤충들에 대한 소개 및 곤충에 대한 연구 방법 등에 대해 기술했다. 그 순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곤충기』의 내용과 수록 곤충

순번	내용	수록 곤충	
1	곤충계의 무장과 전술	(1) 장수풍뎡이 (2) 사슴벌레 (3) 장수하늘소 (4) 방구벌레 (5) 청가래 (6) 가시벌레	(7) 개야길앞자비 (8) 빨풍뎡이 (9) 말벌 (10) 물장군 (11) 장구애비와 게아재비
2	곤충계의 화장술	(1) 사슴풍뎡이 (2) 사향하늘소 (3) 비단벌레	(4) 모시나비 (5) 꼬리명주나비 (6) 유리창나비
3	곤충계의 근로봉사	(1) 소똥구리들 (1-가) 왕소똥구리	(1-나) 소똥구리 (1-다) 꼬마 소똥구리
4	곤충계의 식량 연구	(1) 사체를 호식하는 곤충 (1-가) 귀뚜라미	(1-나) 송장벌레
5	곤충계의 성 생활	(1) 사마귀 (2) 곤충계의 결혼식	(3) 진디물
6	곤충계의 악단 소식	(1) 곤충계의 악단 (2) 귀뚜라미과 (3) 민충이 (4) 매미과	(4-가) 매미 (4-나) 쓰름매미 (4-다) 깽깽매미 (4-라) 풀매미
7	곤충계의 경기 선수	(1) 소금쟁이	(2) 송장해엄치개
8	곤충계의 사회 생활	(1) 개미와 벌	(2) 흰개미
9	곤충계의 모성애와 부성애	(1) 집게벌레	(2) 물자라
10	곤충계의 수명	(1) 하루살이	
11	기타의 가지 가지	(1) 줌 (2) 벼룩, 이, 빈대 (3) 대벌레 (4) 길앞자비 (5) 바퀴 (6) 잠자리 (7) 노린재	(8) 반딧물 (9) 방아벌레 (10) 누에 (11) 흰나비와 노랑나비 (12) 모기 (13) 파리 (14) 하늘소 무리

〈표 2〉를 살펴보면 저자 조복성은 『곤충기』에서 대략 56종의 곤충에 대해 곤충의 특징 및 특성에 따라 조복성 나름의 11개의 분류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조복성은 조목을 구분하여 곤충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는 ‘곤충계의 무장과 전술’이라 하여 장수풍뎡이의 무장법, 싸움을 잘하는 사슴벌레, 곤충계의 거성 장수하늘소, 원자폭탄의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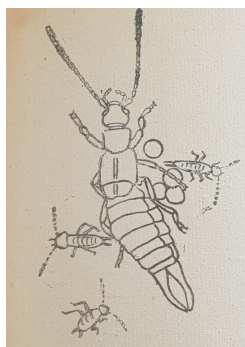
인 방구벌레, 독약 제조의 최고 권위 청가래, 철조망을 거머쥔 가시벌레, 독아가 발달된 개야길앞자비, 투구를 연상케하는 빨풍뎡이, 침을 잘 놓는 말벌, 수중 폭군인 물장군, 어리 폭군인 장구애비와 게아재비 등 약 12종의 곤충 특징을 잘 설명했다. 곤충에 대한 설명은 간결하지만 정식 학명(學名)이나 곤충분류학 상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등 비교적 수준 높은 내용으

로 구성됐다. 또한 곤충의 삽화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로는 '곤충계의 화장술'로 모양이 화려한 곤충이나 향을 내는 곤충들 6종에 대한 설명과 삽화로 구성했다. 사슴풍뎅이는 화장술의 천재로 특징지었고, 향수 제조의 원조라는 별칭으로서 사향하늘소를 소개했다. 곤충계의 주옥으로서 비단벌레와 나비 중 모습이 화려한 모시나비, 꼬리명주나비 그리고 유리창 나비를 기재했다. 세 번째로는 '곤충계의 근로봉사'라는 분류로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풍뎅이과의 대표 3종 곤충을 소개했다. 왕소똥구리, 소똥구리 및 꼬마 소똥구리가 그것들이었다. 네 번째는 '곤충계의 식량 연구'로 채식을 위주로 하는 곤충과 육식을 하는 곤충으로 구분하여 특징지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사체를 호식하는 곤충 귀뚜라미와 송장벌레 등 2종을 소개했다. 다섯 번째는 '곤충계의 성 생활'이라는 주제로 조복성은 이성에게 구애하는 곤충들의 모습을 비롯하여 암컷이 교린(交隣) 후에 수컷을 잡아먹는 사마귀, 암컷 홀로 새끼를 낳는 진디물을 설명했다. 또한 곤충계의 결혼식의 모습 여러 가지

를 묘사하여 곤충세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섯 번째는 '곤충계의 악단 소식'이라는 주제로 조복성은 귀뚜라미과, 베짚이과, 메뚜기과, 대벌레과, 사마귀과, 집게벌레과 등 7분과로 분류했다. 그 중에서 대표적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귀뚜라미과와 단조한 노래를 하는 민충이, 곤충계의 솔로리스트인 매미과의 매미, 쓰름매미, 깽깽매미, 풀매미 등을 설명했다.

일곱 번째로는 '곤충계의 경기 선수'라는 주제 하에 수상(水上)에서의 스케이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소금쟁이, 수영 천재이자 보트 선수인 송장해엄치개 등 2종에 대해 설명했다. 여덟 번째는 '곤충계의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로, 수만 종의 동물 중 규칙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곤충 개미와 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삽화를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홉 번째는 '곤충계의 모성애와 부성애'라는 주제로, 모성애의 대표적 곤충인 집게벌레와 부성애의 대표자 물자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아래 <그림 12>는 수십 개의 알을 낳은 후 곁에 두고 떠나지 않는 암컷 집게벌레와 알을 낳아 등에 붙여놓는 수컷 물자라의 모습이다.



집게벌레



물자라

<그림 12> 『곤충기』에 수록된 집게벌레와 물자라의 삽화

열 번째는 ‘곤충계의 수명’이라는 주제로, 곤충의 식성과 수명과의 관계, 유충과 성충의 수명에 관한 중요 조건, 곤충의 수명비교에 관련된 일람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대표적인 단명 곤충인 하루살이에 대해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가지 가지’라는 이름 아래에 종이를 갉아 먹어 學者들의 적인 좀, 피를 빨아먹는 벼룩, 이, 뱀새 고약한 빈대에 대한 설명도 했다. 생긴 모양이 긴 장대와 같은 대벌레, 길은 안내하는 길앞자리, 청결하게 만드는 바퀴는 장난꾸러기로 비유했고, 눈이 큰 왕눈이 잠자리, 뱀새를 피우는 노린재, 밤에 반짝 빛을 내는 반딧불, 재주를 잘 넘는 방아벌레, 조선에 큰 힘을 보태주는 누에, 봄을 알리는 흰나비와 노란 나비, 시궁창에서 태어나는 모기, 여름에 활동이 왕성한 파리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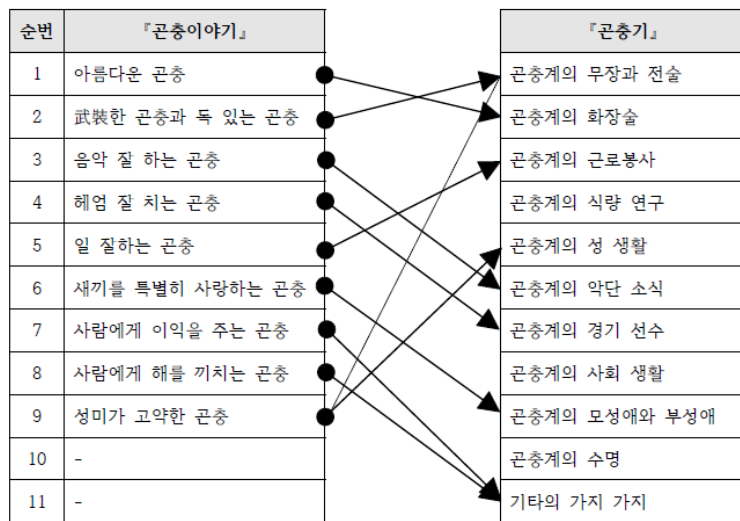
약 56종의 곤충에 대한 설명은 외국 학계에서 불리는 학명과 함께 조선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해당 곤충에 대한 인식, 인간 생활과의 유

사점, 곤충의 생활양식, 곤충 모습의 삽화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여 곤충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4.2.3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에 수록된 곤충 및 분류체계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본문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저자 조복성은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에서 곤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곤충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특히 조복성은 조선인으로는 거의 최초로 곤충 분류학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조복성 저작에서 제시된 곤충 분류체계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김성원 2007, 43). 이에 조복성이 두 저작에서 설정해놓은 곤충 분류체계는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았고, 『곤충이야기』에서는 곤충에 대한 분류체계를 9개의 류(類) 항목으로 구분했으나 『곤충기』에서는 곤충을 11개의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이들 분류체계의 류(類) 항목을 정리·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곤충 분류체계



〈표 3〉과 같이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분류체계는 항목의 개수와 표현법은 달랐으나 대체로 유사한 항목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곤충이야기』의 ‘아름다운 곤충’은 『곤충기』의 ‘곤충계의 화장술’의 내용이 비슷했다. 이 분류에 수록된 곤충은 『곤충이야기』에는 30종으로 많은 종류의 곤충이 포함되었으며 대부분은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류였다. 반면에 『곤충기』는 이보다 훨씬 적은 6종 곤충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곤충이야기』의 ‘무장한 곤충과 독 있는 곤충’은 『곤충기』의 ‘곤충계의 무장과 전술’에 해당했다. 수록된 곤충은 『곤충이야기』의 경우 10종이었고, 『곤충기』는 12종으로 대체로 동일한 곤충을 다루고 있었다. 세 번째로 『곤충이야기』의 ‘음악 잘하는 곤충’은 『곤충기』의 ‘곤충계의 악단 소식’과 유사했다. 여기에 수록된 곤충들은 소리를 잘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곤충으로 『곤충이야기』에는 매미, 귀뚜라미 등 5종의 곤충을 다루었고, 『곤충기』에서는 크게 귀뚜라미과, 민충이, 매미과로 구분하여 수록했다. 네 번째로 『곤충이야기』의 ‘해엄 잘 치는 곤충’은 『곤충기』의 ‘곤충계의 경기 선수’와 적합했다. 물 위에서 수영을 잘하는 특성을 지닌 곤충들을 소개했고, 『곤충이야기』에는 장구애비, 게아재비, 소금쟁이 등 5종의 곤충을, 『곤충기』에는 소금쟁이, 송장해엄치개 등 2종의 곤충을 수록했다. 다섯 번째, 『곤충이야기』의 ‘일 잘하는 곤충’은 『곤충기』의 ‘곤충계의 근로봉사’와 유사했다. 여기에서 다룬 곤충들은 먹이 모으기, 집 짓기 등 일을 열심히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곤충이야기』에서는 소똥구리, 개미 등 3종

의 곤충을 수록했고 『곤충기』에서는 소똥구리들이라고 하여 여러 종류의 소똥구리에 대해 설명했다.

여섯 번째, 『곤충이야기』의 ‘새끼를 특별히 사랑하는 곤충’은 『곤충기』의 ‘곤충계의 모성애와 부성애’와 비슷했다.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곤충류를 제시했는데, 『곤충이야기』에는 집게벌레, 물자라, 땅강아지 등 3종을, 『곤충기』에서는 집게벌레와 물자라 2종을 들어 설명했다. 일곱 번째, 『곤충이야기』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은 『곤충기』의 ‘기타의 가지 가지’에 해당했다. 이는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곤충과 혹은 해를 주는 곤충을 설명했다. 『곤충이야기』에서 이충(利蟲)으로서 누에와 꿀벌 2종을, 해충으로서 파리, 모기 등 5종의 곤충을 제시했고, 『곤충기』에서는 이들 곤충을 기타로 묶어 기재했다. 마지막으로 『곤충이야기』의 ‘성미가 고약한 곤충’은 이와 유사한 주제를 『곤충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 분류에 속한 곤충은 사마귀와 물장군인데, 사마귀는 『곤충기』의 ‘곤충계의 성 생활’에서, 물장군은 ‘곤충계의 무장과 전술’에서 다루었다. 한편 『곤충기』의 ‘곤충계의 수명’에서는 곤충 중 하루살이를 설명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분류주제가 『곤충이야기』에는 없었다.

또한 각 책에 수록된 곤충을 헤아려 비교해본 결과, 『곤충이야기』는 65종이고 『곤충기』는 약 56종에 달하였다. 『곤충이야기』에 수록된 곤충의 종수가 더 많았고 다양했다. 그리고 각 곤충들에 대한 특징과 형태 및 습성 등을 설명하였고, 『곤충이야기』의 경우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므로 곤충이 무엇인지, 곤

충을 잡고 기르기 위한 사육법, 표본 만드는 법 및 연구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반면에 『곤충기』는 『곤충이야기』보다는 수록된 곤충의 종수가 적었으나 대체적으로 곤충계와 생활양식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무리 혹은 사회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다. 비록 각 저작에 수록된 곤충의 수와 종류에서 차이는 있었으나, 저자 조복성은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에서 곤충을 인간생활에 빗대어 설명하여 독자들이 하여금 곤충을 친근감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판단되었다.

5. 결 론

이 연구는 1948년 출간된 조복성 저작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를 대상으로 저자 조복성의 연구활동과 두 저작의 발행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두 서적에 대한 형태 및 체제, 그리고 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서지적 특징을 탐구했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 조복성은 곤충학자이자 대표적인 생물학자였다. 조복성은 청소년기에 조선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도이 히로노부와 모리 타메조로부터 곤충 채집과 분류, 표본 및 동물분류학 등을 배웠다. 1930년대 조선, 만주, 내몽골 등지의 야외 채집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곤충들을 접하고 그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이 때 조복성은 동물명을 명명하였고, 그 중 자신의 이름을 붙인 6종의 곤충도 있었다. 당시 조복성은 두드러지게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고,

조선인 생물학자로서 인정받았다.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립과학박물관장을 비롯, 교수 등을 지내며 우리나라 곤충 및 동물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는 1948년 각기 아협(조선아동문화협회)과 을유문화사에 의해 발행되었다. 을유문화사는 1945년에 창설되어 다양한 학술서적을 중심으로 출판을 했다. 당시 시대상황은 해방 직후로, 민족문화를 향상시키고 특히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계몽하고 그들의 문화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 힘쓰는 시기였다. 이에 발맞추어 을유문화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를 출판하고 문화 사업을 담당할 단체로서 아협을 발족하였다. 이렇듯 아협과 을유문화사는 명칭은 다르지만 그 연원은 동일하였다. 『곤충기』는 을유문화사가 만든 을유문고의 19번째 책으로서, 을유문고는 문고본으로 형태적인 크기는 작으나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을유문고는 주로 대학생층의 청년들을 독자층으로 하였다. 이로써 『곤충이야기』는 어린이 독자층에 초점을 둔 아협에서, 『곤충기』는 청년 독자층을 위한 출판을 담당할 을유문화사에서 발행했다.

셋째,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형태 분석 결과, 『곤충이야기』는 A5판의 국판(菊版), 『곤충기』는 A6판의 문고판으로 상이했다. 아협에서 출판된 아동도서들과 『곤충이야기』의 형태를 비교하니 대부분 국판의 판형이었다. 『곤충기』가 속한 을유문고본은 대체로 A6판형으로 출간되었는데, 문고본의 특징인 휴대의 편의성을 위해 비교적 작은 크기로 출간한 이유도 있지만 해방기의 용지 부족 문제 등 현실적

인 문제에 대한 대안책으로써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체제 분석 결과, 전자의 체제 구성은 ‘앞표지-표제지-머리말-차례-본문-판권기-광고-뒤표지’, 후자는 ‘앞표지-표제지-목차-서언-본문-판권기-을유문고 발간사-광고-뒤표지’로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앞표지와 뒤표지에는 표제, 저자명, 발행처 등 서지요소들이 거의 비슷했으나 글자의 크기 등이 달랐고 뒤표지에는 각 발행처의 상징문양을 넣었다. 표제지의 경우, 두 저작 모두 표제지에 구성된 서지요소들이 거의 동일했으나 사용된 글자가 『곤충이야기』는 한글, 『곤충기』는 한자로 달랐다. 머리말(서언)과 차례(목차) 부분은 『곤충이야기』의 경우 머리말-차례의 순으로, 『곤충기』는 목차-서언의 순으로 순서가 뒤바뀌었고, 용어가 전자는 순우리말을, 후자는 한자어를 사용했다.

본문에서는 두 저작 모두 곤충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었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를 넣은 점이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서자 방향에 있어 『곤충이야기』는 가로쓰기를, 『곤충기』는 세로쓰기로 차이점을 확인했다. 두 저작이 발행 연도가 같음에도 서자 방향을 달리 출판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글로 기재된 『곤충이야기』는 한글 표기가 비교적 쉬운 가로쓰기 방식을,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한 『곤충기』는 옛 방식인 세로쓰기 방식을 채택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당시 문헌의 연구를 진행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사용글자에 있어 전자는 주로 한글과 한자어의 경우 ‘한글(한자)’를 병용하는 형식을, 후자는

한자어는 한자 그대로 기재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곤충이야기』의 주요 독자층은 한글을 배워야 하는 어린 학생들이었고, 이에 비해 『곤충기』의 주요 독자층은 연령이나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글자 사용과 한자 기술 형식에 차이를 둔 것이 아닐까 추측됐다.

판권기의 경우, 두 저작간의 판권기에 실린 서지정보의 항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곤충기』는 판권기 옆에 저자 조복성의 약력을 기재했다는 점이 달랐다. 이에 대해서는 『곤충기』가 을유문고이므로 을유문고의 형식을 따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곤충기』에는 『곤충이야기』에는 없는 체제가 구성되었는데, ‘을유문고 발간사’였다. 이 부분에는 을유문고가 생기게 된 이유와 출판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었다. 광고 부분에서는 『곤충이야기』는 발행처인 아협에서 발간한 책인 아동도서와 잡지를, 『곤충기』는 독자층에 맞는 수준 높은 책들을 실었다.

다섯째,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의 머리말과 본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머리말을 통해서 대상 독자층과 저술 동기 및 목적에 대한 차이를 확인했다. 『곤충이야기』에는 ‘어린이 여러분, 어린 동무’ 등의 단어를, 『곤충기』에서는 ‘조선 학도, 청년’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상 독자층이 각각 어린이, 청년으로 달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술 동기 및 목적에 대해서는 『곤충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조선의 곤충 연구를 독려, 『곤충기』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곤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저술되었음을 확인했다.

본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곤충이야기』와 『곤

충기』에서 곤충의 특성에 따라 조복성이 설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곤충을 설명했다는 점이 같았다. 이 때 조복성이 설정한 두 저작의 곤충 분류체계는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았고 전자는 9개의 유(類)로, 후자는 11개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분류체계는 그 수와 표현법은 달랐으나 그 내용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 책에서 수록한 곤충을 헤아려본 결과, 『곤충이야기』는 65종, 『곤충기』는 56종으로 차이가 있었다. 『곤충이야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곤충이 무엇인지, 곤충의 채집 및 사육법, 표본 등 연구법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었다. 『곤충기』는 대체로 곤충계와 그들의 생활양식 등 무리 혹은 사회집단에서의 곤충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저작의 내용은 모두

곤충을 인간생활과 빗대어 독자들로 하여금 친근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내용 서술의 초점이 위와 같이 상이함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1948년에 한국의 파브르로 불리는 생물학자 조복성이 한국 최초로 곤충에 대해 저술한 『곤충이야기』와 『곤충기』를 형태 및 체제, 내용 등 다각도로 분석함에 그 의의를 두었다. 광복 이후, 1948년은 우리 민족의 계몽과 지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출판물이 발간되었는데 『곤충이야기』와 『곤충기』에 대한 본 연구가 해방기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서적 연구를 함에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출판학뿐만 아니라 국문학, 생물 및 동물학, 곤충학과 연관된 학문 및 관련 연구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김성연. 2015. 『과학 서사와 근대 지식의 형성: 해방 이후 파브르 <곤충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대전: 한국연구재단, 2013S1A5B5A07048548.
- [2] 김성원. 2007. 『식민지 시기 조선인 생물학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 [3] 김진일. 2010. 한국 곤충학의 선구자 관정 조복성 박사의 생애와 업적. 『곤충연구지』, 26: 3-14.
- [4] 森爲三, 土居寛暢, 趙福成 共著. 1934. 『(原色)朝鮮の蝶類』. 京城: 大阪屋號書店.
- [5] 오영식 편저. 2009. 『해방기(1945-1950) 간행도서 총목록』. 서울: 소명출판.
- [6] 을유문화사 편. 1994. 『을유문화사 오십년사』. 서울: 을유문화사.
- [7] 정재환. 2013.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연구(1945~1957년)』.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 [8] 정진숙 저. 2007. 『출판인 정진숙: 을유문화사 창립자 정진숙의 출판 인쇄』. 서울: 을유문화사.
- [9] 조복성 저. 1948. 『곤충기』. 서울: 을유문화사.
- [10] 조복성 저. 1948. 『곤충이야기』. 서울: 조선아동문화협회.

- [11] 朝鮮昆蟲展覽會 今朝九時에開場. 1931. 『동아일보』. 5월 21일. 제4면. [online] [cited 2019. 3. 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31-05-21&officeId=00020&pageNo=1>>
- [12] 진나영. 2018. 해방기 출간 <아협그림애기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405-427.
- [13] 한국출판학회 엮음. 2012. 『한국출판산업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14] 홍윤표 지음. 2013. 『한글이야기 1』. 경기: 태학사.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eongyeon. 2015. *Formation of science narrative and modern knowledge*. Dae Je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3S1A5B5A07048548.
- [2] Kim, Seongwon. 2007. *The Context of a Korean Biologist's Growth in Colonial Korea*. M.A. thesis,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3] Kim, Jinil. 2010. "Dr. Jo Bok-seong's life and achievements." *ENTOMOLOGICAL RESEARCH BULLETIN*, 26: 3-14.
- [5] Oh, Yeongsik. 2009. *The Catalog of print books in liberation period*. Seoul: So Myeong publication.
- [6] Eulyoo Publishing. 1997. *The 50 years of Eulyoo Publishing*. Seoul: Eulyoo Publishing.
- [7] Jeong, Jaehwan. 2013.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since Korean liberation between 1945 and 1957*. Ph.D. diss., School of Korean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 [8] Jeong, Jinsuk. 2007. *Publisher Jeong Jinsuk*. Seoul: Eulyoo Publishing.
- [9] Jo, Bok-seong. 1948. *About Insects*. Seoul: Eulyoo Publishing.
- [10] Jo, Bok-seong. 1948. *Story of Insects*. Seoul: Eulyoo Publishing.
- [11] "Chosun Insects Fair Opened at 9:00 this morning." 1931. *Dong-A Newspaper*. May 21. [online] [cited 2019. 3. 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31-05-21&officeId=00020&pageNo=1>>
- [12] Jin, Na-Young. 2018. "A Study on the <Ahyeop Picture Storybook> published in the Liberation Perio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405-427.

- [13] Korean Publishing Science Society. 2012. *A History of Korean publishing industry*. Seoul: Hanul Academy.
- [14] Hong, Yunpyo. 2013. *The story of Han-guel*. GyeongGi: Thaehaksa.